

국보관

목조천등귀 · 용등귀입상

국보

이 유머러스하면서도 매우 특이한 조각은 13 세기에 만들어진 두 사귀의 상입니다. 보통 이러한 사귀는 사천왕과 같은 불교의 수호신에게 짓밟힌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이 상에서 사귀들은 불교에 귀의한 자로 표현되어 부처를 위해 주변을 비추는 등룡을 들고 있습니다. 원래는 서금당(西金堂) 중앙의 수미단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상체를 감고 있는 용의 꼬리를 붙잡고 등룡을 머리 위에 얹은 모습의 용등귀상은 121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유명한 불상제작자 운케이(?~1223년)의 아들인 고벤(생몰년 미상)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 어깨에 올린 등룡을 왼손으로 받치고 있는 모습의 천등귀상도 고벤이 만든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같은 시대에 활동한 게이파(慶派)라 불리는 불상제작자 집단의 작품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용등귀상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목재 이외에 사용된 재료입니다. 굽은 눈썹은 동판을 잘라 만들었고 엄니는 수정, 그리고 용의 등에 달린 지느러미에는 동물의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두 상 모두 눈에는 수정이 박혀 있어 더욱 생생한 존재감을 자아냅니다.